

전북현대 클럽 아메리카 이기면 레알 만난다

6대륙 챔피언 선두 경쟁 클럽 월드컵 내일 개막

전북 현대가 꿈의 클럽으로 불리는 레알 마드리드와 마주할 수 있을까 흔치 않은 기회를 살리는 것은 전북의 몫이다. 전북은 내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2016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 출전한다.

클럽 월드컵은 유럽과 남미, 북중미,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6대륙 챔피언이 모여 우승을 겨루는 대회다. 전북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이번 대회 출전한다.

전북은 한 경기만 승리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기다리고 있는 4강에 오를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축구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던 세계 최고 구단 중 하나다. 프리메라리가 32회,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한 대륙 대회 11회 우승에 빛난다.

선수단 면면은 화려함 그 자체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와 세르히오 라모스(스페인), 카림 벤제마(프랑스), 루카 모드리치(크로아티아) 등 국가대표 에이스들이 즐비하다.

전북-레알 마드리드전이 성사될 경우 전북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북은 11일 북중미 축구 협회(CONCACAF) 챔피언스리그 클럽 아메리카와 첫 경기를 갖는다. 이 한 판으로 레알 마드리드와의 맞대결 유무가 결정된다.

멕시코팀인 클럽 아메리카는 올해 창단 100년째를 맞이한 멕시코의 명문 클럽이다. 전북은 2006년 같은 무대에서 클럽 아메리카를 상대한 경험이 있다.



전북현대가 오는 8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2016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 출전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알아인 하자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2차전에서 비기며 우승을 차지한 전북 현대 모터스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

당시 창단 첫 아시아 제패에 성공한 전북은 클럽 아메리카를 맞아 선전했지만 후반 34분 리카르도 로하스에게 결승골을 내줘 0-1로 패했다.

봉헌의 한 골로 전북은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자웅을 겨룰 기회를 낳았다.

10년 만의 복수를 꿈꾸는 전북의 사정은 썩 좋지 않다.

주전 골키퍼 권순태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됐고 외국인 선수 로페즈도 수술대에 올랐다.

전북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합작한 레오나르도와 김신욱, 이동국, 이재성 등으로 클럽 아메리카를 상대할 계획이다.

클럽 아메리카에는 공격수 오리베 페랄타가 눈에 띈다.

2005년부터 멕시코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 페랄타는 2012년 런던올림픽 결승전에서 브라질을 무너뜨리는 한 방으로 멕시코에 금메달을 안겼다.

지난해 40경기에서 17골을 넣는 등 최근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여전한 골 감각을 뽐내고 있다.

아르헨티나 출신 공격수 실비오 로메로도 경계대상이다. 지난 8월 같은 멕시코팀인 치아파스에서 클럽 아메리카로 적을 옮긴 로메로는 4개월 동안 팀에서 가장 많은 10골을 기록했다.

이동국은 "첫 경기를 이기면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를 한다. 모두가 그런 상황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 또한 세계 최고의 팀과 붙는 것에 기대하고 있다. 첫 경기를 이긴 뒤 레알 마드리드와 대등한 경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재성은 레알 마드리드와의 맞대결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모드리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경기를 해보고 싶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클럽월드컵 우승팀 상금은 500만 달러(약 58억5000만원)다. 준우승팀에는 400만 달러(약 47억원), 3위팀에는 250만 달러(약 29억원)가 각각 들어간다.

이재성은 "첫 경기를 이기면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를 한다. 모두가 그런 상황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 또한 세계 최고의 팀과 붙는 것에 기대하고 있다. 첫 경기를 이긴 뒤 레알 마드리드와 대등한 경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전북체육회, 자유학기제 스포츠 프로그램 '미드림 스포츠 스타강연' '호응'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의 여중생 대상 자유학기제 스포츠 프로그램인 '미드림 스포츠'의 연계활동으로 '미드림 스포츠 스타강연'을 실시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강연은 올림피아에서 금메달을 3번이나 획득한 전북도청 양궁팀 박성현 감독이 강사로 나서 전주, 정읍, 김제 등 3개 시군 6개 학교의 366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강연에 참석한 학생들은 "평소 배울 수 없었던 양궁에 대한 이론과 기초 지식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즐거웠다"며 "양궁 외에도 더욱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대해 더욱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다"며 강연에 대한 만족감을 표명했다.

한편, 스포츠 스타 강연은 오는 9일 김제 금성여중과 16일 전주 우이중학교, 19일 전주 서선주중 학교에서 계속 실시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음주 뺑소니' 강정호 경찰 출석... '팬들께 죄송'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메이저리거 선수 강정호(29·피츠버그(사인))씨가 6일 오후 경찰에 재소환됐다. 1차 조사를 받은 지 나흘째다.



강씨는 이날 오후 2시44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와 "모든 팬들께 죄송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청바지 차림의 편한 복장으로 나타났다. 취재진들의 계속된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거듭 밝힌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강씨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진 후 매니지먼트사인 (주)리코스포츠에 전지를 통해 "불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고 사고를 낸 순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라며 사과한 바 있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민약 강씨가 동승자 유모(29·지영업자)씨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지시나 부탁한 것으로 확인되면 범인은닉·도피 및 범인은닉·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강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48분께 술을 취해 BMW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속소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였다.

강씨는 지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확인돼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뉴시스

신인왕 넥센 신재영, 몸값 3배올라 역대 연봉 진입

2700만원~1억1000만원... 팀 역대 최고인상률

올 시즌 15승을 달성하며 신인왕을 차지한 넥센 히어로즈 투수 신재영(27)이 데뷔 5년 만에 역대 연봉을 달성했다.

넥센은 6일 오전 고척 스카이돔 구단 사무실에서 신재영과 연봉 2700만원에서 8800만원(307.4%) 인상된 1억1000만원에 2017년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재영은 지난 2012년 NC 다이노스에 8라운드 69순위로 지명돼 프로에 입단했지만 1군 무대에 그의 자리는 없었다.

2013년 트레이드를 통해 넥센 유니폼을 입은 신재영은 경찰청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전혀 주목 받지 못했다.

프로 입단 후 단 1차례도 1군 무대를 밟지 못한 신재영은 올 시즌 해설처럼 나타

났다. 시즌 전부터 선발의 한 축을 맡은 신재영은 날카로운 제구력과 슬라이더를 앞세워 에이스로 거듭났다.

신재영은 올 시즌 30경기에서 188%이닝을 소화하며 15승 7패 99탈삼진 평균자책점 3.90으로 맹활약했다. 다승 부문 공동 3위, 평균자책점 7위의 뛰어난 성적이었다. 압도적인 포치로 신인왕을 차지했다.

소속팀 넥센은 그런 신재영에게 직전 연봉 대비 307.4%라는 팀 역대 최고인상률로 첫 역대 연봉을 선사했다. 이전까지 최고인상률은 지난 시즌 김하성의 300%였다.

신재영은 "하루만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보상과 대우가 따른다는 것을 느꼈다. 팀

역대 최고 인상률로 연봉을 책정해준 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신인왕 수상에 이어 만족스러운 연봉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 같다. 무엇보다 코칭 스태프의 믿음, 동료 선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신재영은 역대 연봉자 반열에 오른 만큼 책임감과 함께 내년 시즌에도 올 시즌과 같은 활약을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 캠프 기간 동안 부족했던 변화구를 가다듬고 체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그는 "역대 연봉에 진입한 만큼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팀 성적에 도움을 주는 것이 내년시즌 목표"라며 "변함없는 피칭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